인간 이해, 어린이 존재에 대한 심층적 이해

몬테소리, 슈타이너
야누쉬코르착을 중심으로

어린이는 영원한 수수께끼 !
나는 모르겠다.

- 알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***사랑하면 알게 된다.***

 * 안다고 하는 순간 무지에 빠질 수 있다.

- 어린이는 경이로운 생명체이며 매혹적인 놀라움으로 가득찬 창조적인 존재이다.

- 어떤 책이나 어떤 의사도 아이들에 관해 우리 자신의 깨어있는 생각과 조심스러운 관찰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.

- 야누쉬코르챡, 슈타이너, 몬테소리

- **병아리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**
  어린이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다.

- 어미에게 의존적 존재에서 점차 독립체로
- 집단 안에서 개성적 존재로 성장하기
- 부지런한 탐색에서 생존 능력을 배우다.
  (최선의 결정을 선택하는 능력!)

- 닭장에 가두어 기르기 vs 방목하기

어른 중심 사회에서 아이들의 자리는?

- 피로 사회(한병철)에 노출된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있을까?
- 형제자매가 없는 핵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? (여백의 자리 없이 지나친 기대, 지나친 간섭, 혹은 고립, 방치, 매체에 의존한 하루하루)
- 학대나 폭력에 노출된 경우 그것은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죽일 수 있다. (정서학대, 언어폭력, 신체적 학대, 억압 등등)

통전적 존재(Whole Being)

- 영혼육을 가진 통전적 존재

- 뇌와 심장과 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존재
- 유전적 잠재력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
- 전생과 후생의 사이, 현생을 통해 육화해 가는 존재, 도토리 안에서 참나무를 보라 (루돌프슈타이너)
- 정신의 불꽃을 가진 존재 (몬테소리)

아이의 주체적 인격은
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성장한다.

- 자아가 팽창된 아이
- 자아가 위축된 아이
- 수동적인 아이
- 능동적인 아이
- 자율적인 아이
- 자기주도적인 아이
- 자기결정권을 가진 아이
-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

교육기관은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가?

- 주입식 교육 vs 자기 주도적 학습
- 건강한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생생한 배움
- 피드백구조 : 반드시 아이들의 생각과 결정이 반영될 수 있는 순환구조 만들기

그 안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한다.

나는 모르겠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준다.
아이들이 드러내는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적 비밀이 숨어 있다.
(야누쉬코르착)